

#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姜 在 光\*

1. 머 리 말
2. 海島入保策 立案과 蒙古侵入
3. 對蒙戰爭期の 戰略海島
4. 맺 음 말 : 海島入保策 固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 1. 머 리 말

對蒙戰爭期 29년 동안 崔氏政權은 海島入保策을 유효한 戰略으로 채택하여 蒙古침략에 대항하였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최씨정권의 해도입보책은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騎兵과 砲兵을 중심으로 위력적인 速度戰과 攻城戰을 구사하던 蒙古군의 예봉을 둔화시키고 장기전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종 19년 6월에 崔瑀의 독단에 의해서 강행된 江華遷都 역시 해도입보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sup>1)</sup> 해도입

보책은 최씨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金俊·林衍政權에 의해 계승되어 고수되었을 만큼 麗·蒙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대몽전쟁 초기 蒙古六事<sup>2)</sup> 전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었던 몽고가 전쟁이 장기화되자 고종 말엽에 이르러 최우선적인 講和條件으로서 國王親朝와 더불어 江都朝廷의 出陸還都를 강요해 왔으며 海島入保民이 出水就陸할 것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해도입보책에 대해서 그 동안 高麗史學界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최씨정권의 遷都抗爭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해도입보책을 강화천도와 연관시키면서 이 전략이 최씨정권 자체의 생존전략에 불과하며 극히 소극적인 抗蒙姿勢의 결정체였다고 치부하였다.<sup>3)</sup> 대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학계를 지배했던

- 1) 尹龍燾,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58~60쪽.
- 2) 몽고에 臣屬하는 국가가 이행해야 할 6가지 義務事項을 말한다. 六事의 내용은 몽고에 신속한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일반적으로, 첫째 君王의 親朝와 支配層子弟를 入質시킬 것, 둘째 戶口調査를 하여 보고할 것, 셋째 蒙古軍의 타지역 원정 시에 助軍할 것, 넷째 賦稅·食糧을 輸納할 것, 다섯째 達魯花赤을 駐在토록 할 것, 여섯째 驛站을 설치할 것 등을 가리킨다(高柄翊, 「高麗와 元과의 關係」, 『東洋學』 7, 1977, 282쪽). 『高麗史』 卷25 元宗 3년 12월조에서는 納質·籍民(籍編民)·置郵·助軍·軍糧輸送 등 5가지만 등장하며, 같은 내용이 『元高麗紀事』 世祖皇帝 3년 10월 29일조에서도 나타난다.
- 3) 朴高熙는 「江華島에서의 李奎報와 그의 本質」(『한국사』 7, 國事편찬위원회, 1973, 287쪽)에서 “高宗 19년(1232) 6월 정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崔怡는 몽고 침략군과의 對戰을 회피, 강화도로 천도하였다”고 했으며, 姜普哲은 「江華島 遷都와 蒙古의 再侵」(『한국사』 7, 國事편찬위원회, 1973, 347쪽)에서 “강화도 천도는 일부의 지배계급만이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 정치적 목적에서의 江華遷都를 혹평하기도 하였다. 金潤坤은 강화천도가 草賊과 地方叛民들의 反政府的 活動으로부터 崔瑀가 자기정권의 안보를 보장받으려 하였던 것 과도 연관된다고 해석하였다(金潤坤, 「江華遷都의 背景에 關해서」, 『大丘史學』 15·16, 1978, 13~14쪽). 그러나 강화천도 이후에 초적과 지방민이 遷都反對運動을 전개하며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의 위협 때문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尹龍燾은 강화천도가 구체적 전략을 가지지 못한 도피적 행동이자 소극적 방책으로서 崔氏政權의 온존에 집착한 自救策에 불과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尹龍燾, 「崔氏武人政權의 對蒙抗戰姿勢」, 『史叢』 21·22, 1977, 317~318쪽).

\* 서강대학교 강사

것이다. 하지만 전쟁사 방면에서 金庠基, 周采赫, 尹龍燮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해도입보책의 일단이 부분적이거나 드러났고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그것의 순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김상기는 최씨정권의 해도입보 항전이 유격전과 더불어 몽고군을 고전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 요소였으며 특히 강화천도는 그 당시 국제정세 상으로나 여·몽 간 군사력 차이 면에서나 몽고의 재침입에 대응한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對高麗戰爭에 실패한 몽고가 평화조건을 제시하며 ‘出水就陸’을 즐기게 요구해 왔던 것은 첫째 고려의 군사적 저항 무력화, 둘째 고려와 南宋·日本과의 군사적 연계 차단, 셋째 고려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일본정복을 의도했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하였다.<sup>4)</sup> 다음으로 주채혁은 여몽전쟁 초기 고려와 몽고 양측의 작전여건을 다각도로 고찰했는데, 최씨정권이 고려의 인민과 물자를 모두 해도로 옮겨놓는 淸野戰術을 씀으로써 몽고가 고려의 인력·물력을 이용해서 고려를 타격하는 ‘高麗征服戰爭의 高麗化(以夷制夷策)’를 차단시켰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최우에 의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강화천도로 인해서 몽고군은 위험성이 수반되는 江都直攻을 포기하고 내륙에 대한 지루한 소모전을 반복함으로써 결국에는 몽고가 자신들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설명하였다.<sup>5)</sup> 마지막으로 윤용혁은 최씨정권이 구사한 해도입보책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전개, 전략상 의의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몽고군의 水戰 감행이라는 전략변화에 따른 해도입보책의 위기와 이 전략이 근본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점들을 지적하였다.<sup>6)</sup> 윤용혁의 연구는 해도입보책을 參考로 다룬 최초의 논문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방면 연구를 한 단계 심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

4)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二)」, 『震檀學報』 10, 1939, 32~34쪽.

5) 周采赫, 「初期 麗·蒙戰爭 略察-兩軍의 作戰與件을 中心으로-」, 『清大史林』 3, 1979, 104~107쪽.

6) 尹龍燮, 앞의 논문, 『歷史教育』 32, 1982, 56~80쪽.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선행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해도입보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 사항들이 모두 擧出된 것은 아니다. 해도입보책이 언제 왜 입안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예 다루지지도 못했다. 또한 대몽전쟁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시되어 강도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해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全無하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戰略海島<sup>7)</sup>의 위치 및 수효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상에서의 기능과 海島戰鬥에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전쟁사적 측면에서 기술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撒禮塔의 제1차 침공 초반부터 해도입보가 일 반화되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해도입보책이 고종 18년 이전에 이미 구상되고 입안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시원을 찾는 작업을 시도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서 대몽전쟁기에 등장하는 해도를 모두 적출한 이후 『高麗史』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大東地志』의 島嶼條와의 대조를 통해 전략해도를 추출해보고 전략적 측면에서 그것의 역할과 대몽전투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전략해도를 본격적으로 해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대몽전쟁기 최씨정권에 의해 입안된 해도입보책과 전략해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기를 희망한다.

7) 이 글에서 말하는 戰略海島란 對蒙戰爭기에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등장하는 海島들 가운데 육지와 가까우며 戰略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서 州縣民·別抄軍이 入保해 있는 섬을 지칭한다. 필자는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해도에서 몽고군과의 海上戰鬥가 벌어지고 해도에 입보한 州縣民·別抄軍·驛卒 등의 奇襲上陸戰이나 謀叛事件이 발생하였다면 그 해도를 전략해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전략해도의 위치나 수효 그리고 주요한 해상전투(水戰)에 관한 사항은 이 논문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2. 海島入保策 立案과 蒙古侵入

高宗 18년(1231) 8월 蒙將 撒禮塔이 著古與被殺事件을 명분으로 불시에 고려를 침공함으로써 같은 왕 6년(1219) 2월에 여·몽 사이에 체결된 兄弟盟約은 일방적으로 파괴되었으며 본격적인 대몽전쟁이 개시되었다. 몽고 제1-(1)차 침입의<sup>8)</sup> 목적은 고려의 최전방 방어선인 北界를 와해시켜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 차후 蒙古六事 의무를 부과시키고, 최우선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貢物(歲貢)을 징수하는데 있었다.<sup>9)</sup> 더 나아가서는 항복한 고려군을 助軍시켜 蒲鮮萬奴의 東眞國을 정벌하기 위함이었다.<sup>10)</sup> 개진 초기에 북계 州縣民이 龜州城·慈州城 등지에서 승리했으나 義州(咸新鎮)·麟州가 살레답에게 자진해서 투항하고 龍州·鐵州·宣州·郭州 등 북계의 大城 14성이<sup>11)</sup> 몽고군에게 함락됨으로

8) 尹龍燾은 對蒙戰爭 29년을 모두 6차 시기로 정리한 바 있다(윤용혁,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40~41쪽). 제1차 전쟁: 高宗 18~19년(1231~1232) 몽고원수 撒禮塔/제2차 전쟁: 高宗 19년(1232) 撒禮塔/제3차 전쟁: 高宗 22~26년(1235~1239) 唐古/제4차 전쟁: 高宗 34~35년(1247~1248) 阿母侃/제5차 전쟁: 高宗 40~41년(1253~1254) 也古/제6차 전쟁: 高宗 41~46년(1254~1259) 車羅大. 이상과 같은 시기 구분은 학계의 통설로 굳어져 있는 모습이며 대체로 필자도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 하지만 對蒙戰爭期를 전쟁의 전후연속성과 몽고군 원수 별로 시기구분을 시도하면 高宗 18~19년의 전쟁은 撒禮塔에 의해서 계속 주도되었으므로 모두 5시기로 구분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윤용혁이 구분한 제1차·제2차 전쟁을 하나로 묶어서 제1-(1)·(2)차 전쟁으로 규정하였는데, 제1-(1)차 전쟁은 高宗 18년의 침입을, 제1-(2)차 전쟁은 같은 왕 19년의 침입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이후의 전쟁 단계는 하나씩 감소하게 되어 唐古에 의해서 수행된 제3차 전쟁은 제2차 전쟁이 되고, 맨 뒤의 車羅大의 제6차 침공은 제5차 침공에 해당하게 된다.

9)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의 對應』,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50쪽.

10) 周采赫, 『高麗內地의 達魯花赤 置廢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 1, 1974, 107~108쪽.

11) 撒禮塔을 元帥로 하는 몽고군이 제1-(1)차 침입 기간 중에 함락시킨 곳은 『元史』 卷120 吾也而傳, 『元史』 卷149 移刺買奴傳, 『高麗史』 高宗世家, 『高麗史』 朴犀傳·金慶孫傳·

써 고려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계 興化道와 西海道의 州·縣은 일찍부터 해도입보를 실행하여 몽고군의 예봉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高宗 18년에 주·현이 해도입보를 단행한 사례를 적출해 보면서 해도입보책의 입안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A-1. 丁酉 蒙兵至黃鳳州 二州守 率民 入保鐵島(『高麗史』 卷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
2. 咸新鎮報曰 國家若遣舟楫 我當盡殺留城蒙人小尾生等 然後 卷城乘舟如京 乃命金永時等三十人 具舟楫以送 果殺蒙人幾盡 小尾生先覺亡去 副使全僞率吏民 入保薪島 後 僞挈家乘舟還京 溺死(『高麗史 節要』 권16 高宗 18년 冬10月條)
3.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于紫燕島 元宗 二年 出陸(『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宣州條)
4. 高宗 十八年 蒙兵陷昌州 州人 入于紫燕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隨州條)
5. 高宗 十八年 被蒙兵 城邑丘墟(『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昌州條)
6.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雲州條)
7.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博州條)
8.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嘉州條)
9.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郭州條)

文大傳·趙叔昌傳·洪福源傳,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 昌城都護府 建置沿革條 등을 통해서 볼 때, 咸新鎮·寧德鎮·瑞昌縣·麟州·鐵州·龍州·宣州·郭州·朔州·靜州·安北府·平州·秦州·雲州·蔚州(嘉州)·昌州 등 16城이었다. 이 가운데 小城은 영덕진과 서창현 뿐이다. 그러므로 撒禮塔軍이 공함시킨 大城 14개는, 함진진·인주·철주·용주·선주·곽주·삭주·정주·안북부·평주·태주·운주·가주(嘉州)·창주의 14성이 된다. 놀라울 정도로 移刺買奴傳에서 언급한 수효와 일치한다. 몽고는 北界 40여 성 전체를 공함한 것이 아니라 고작 14개 정도의 대성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10.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海島 四十四年 併于殷州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孟州條)
11.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撫州條)
12.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 二年 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秦州條)
13. 高宗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後出陸(『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殷州條)

몽고의 침입이 개시되자마자, 고종 18년 9월 14일에 黃州守·鳳州守가 백성을 거느리고 서해도 黃州 관할의 鐵島에<sup>12)</sup> 입보했다든가(A-1), 같은 해 10월에는 咸新鎭副使 全僞이 함신진에 주둔 중인 몽병을 죽인 다음 吏民을 이끌고 북계 용주의 薪島에<sup>13)</sup> 입보했음이 확인된다(A-2). 이러한 해도입보는 주·현 단위로 고을 守丞을 통해 집행된다는 사실도<sup>14)</sup> 간과할 수 있다. 한편 A-3~13의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전주·昌州(隨州)가 紫燕島에, 雲州·博州·嘉州·郭州·孟州·撫州·秦州·殷州가 어느 해도에 각기 입보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의 10州 가운데 은주를 제외하고는 고종 18년에 해도에 입보하였다가 모두 元宗 2년에 출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 은주는 원종 2년 이후에 출륙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고려사』 고종 세가에서 博州人이 葦島에, 孟州守令 胡壽가 神威島에 입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박주는 위도에, 맹주는 신위도에 입보했음이 명백하다.

2) 『大東地志』卷18 黃海道 黃州 山水條를 보면 鐵島가 黃州 소속임을 알 수 있는데, 섬 안에 堤堰이 있어서 식수확보와 농사짓기에 유리한 섬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大東地志』卷24 平安道 龍川 島條에 薪島가 등장하고, 『輿地圖書』冊23 平安道 龍川府 龍川地圖를 참고하면 신도가 龍州 소속의 海島임을 알 수 있다. 신도는 현재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이다.  
 4) 尹龍嫻, 앞의 책, 1991, 184~185쪽. 海島入保 명령체계는 江都朝廷(崔氏政權)→兩界兵馬使·5道按察使·3道巡問使→州·郡·縣 守令 혹은 防護別監→州縣民으로 전달되었다.  
 5) 『高麗史』卷24, 고종 44년 8월조와 『高麗史』卷24 고종 45년 5월 壬戌日條 참조.

德州는 원종 1년(1260)에 安州의 蘆島에 입보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보다 앞선 고종 18년에도 로도에 입보했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아 일단 논의에서 제외한다.<sup>16)</sup> 고종 18년 당시 철도(황주·봉주 입보), 신도(함신진 입보)에다 자연도(선주·창주 입보), 위도(박주 입보), 신위도(맹주 입보)를 합하면 최소한 5개의 海島入保處가 발견되는 셈이다. 하지만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 등 6주도 북계 서해안의 어느 섬에 입보했을 것이므로<sup>17)</sup> 해도입보처는 5개 이상이었음이 분명하다. 북계와 서해도에서의 해도입보책은 이미 대몽전쟁 초기부터 확산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고종 18년 9~10월 사이에<sup>18)</sup> 전주 등 10주가 해도에 입보했으리라 판단된다.

고종 18년 9~10월 사이에 북계의 연해안 주·현이 해도에 입보했다는 것은 이미 대몽전쟁 이전부터 해도입보책이 유효한 對蒙戰略으로서 채택되어 있었음을<sup>19)</sup> 방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서 아래의 기사가 크게 주목된다.

B-1. 秋七月 遣戶部侍郎崔正芬等 八人 分巡北界興化道諸城 檢閱兵器儲備軍資 并諸小城入保大城 時 諜者 有蒙古乘秋復來之語 故備之(『高麗史』卷22 고종 6년 秋7月條)

16) 이들과 다르게 北界의 德州는 高宗 18년에 海島에 入保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元宗 元년에 蒙兵을 피해서 안주의 蘆島에 입보했다고 되어 있다(『高麗史』卷58 地理志3 德州條). 따라서 덕주는 對蒙戰爭期 海島入保處이더라도 고종 18년 해도입보처에서 제외하였다.  
 17) 雲州·嘉州·郭州·撫州·秦州·殷州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鐵州의 靛島나 宣州의 身彌島 등에 入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도와 신미도는 고종 18년 海島入保處로서 등장하지는 않으나 北界를 대표하는 大島였기 때문에 운주 등이 나누어 입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 高宗 18년 9월 초반에 龜州城·西京城 전투 등 大戰鬥가 벌어졌고, 10월 하순에는 安北府戰鬥가 치러진 점을 감안한다면 9월 중반부터 10월 초순에 이르는 시기에 이들 10州가 海島에 입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안북부전투 이전에는 모두 지정된 해도로 옮겨갔을 것이다.  
 19) 尹龍嫻, 앞의 논문, 1982, 58쪽. 氏는 海島入保策 입안 시점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2. 丙子 致陷興中府 … 拔蘇復海 三州 斬完顏衆家奴 咸平宣撫蒲鮮等 率衆十餘萬 遁入海島(『元史』 卷119 列傳6 木華黎傳)

위의 사료 B-1을 보면, 崔忠獻政權이 高宗 6년(1219) 7월에 戶部侍郎 崔正芬 등 8명을 시켜 북계 興化도의 諸城 19곳을<sup>20)</sup> 분담하여 순회하면서 병기·군량·군비와 여러 小城들이 大城에 들어와 입보하고 있는 정황을 검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충헌이 興化도의 大城入保體系를 검열해 했던 것은 첩자들 입에서 같은 해 가을에 몽고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최충헌정권은 몽고·동진과 더불어 契丹遺種을 격멸시켰던 江東城戰役을 계기로 高宗 6년 2월에 몽고원수 哈眞, 부원수 扎刺(撒禮塔)와<sup>21)</sup> 고려군 원수 趙冲·金就礪 사이에 兄弟盟約을 체결케 하여 몽군을 철수시켰지만<sup>22)</sup> 그 조약은 고려 측에 불리한 불평등조약이었다.<sup>23)</sup>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몽고의 침략 소문을 접하게 되자<sup>24)</sup> 興化도에 국한하여 국방태세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시점 이후 어느 시기에 興化도 연해안의 해도에 대한 입보도 구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高宗 6년 북계 興化도에서 대성입보체계를 점검한 이후, 유사시에 대비하여 의주·인주·용주·철주 남부의 주·현과 청천강 유역에 위치한 주·현의 해도입보도 구상되었으리라<sup>25)</sup> 생각되는 것이다.

20) 『高麗史』 卷82 兵志2 站驛條를 보면, 興化道는 長寧驛(黃州 소속) 등 29개 驛站을 관할하였다. 이들 역참이 소속된 州·鎭은 黃州·嘉州·郭州·宣州·鐵州·寧州·靜州·義州·龍州·麟州·秦州·龜州·朔州·寧德鎭·威遠鎭·安義鎭·定戎鎭·寧朔鎭·安戎鎭 등 19곳이다. 19곳 가운데 州가 13개, 鎭이 6개이다.

21) 江東城戰役에서 蒙古 副元帥로서 고려와의 외교업무를 전담하였던 扎刺는 몽고 제1차 침공을 단행하였던 撒禮塔과 동일인물로 밝혀져 있다(周采赫, 「扎刺와 撒禮塔」, 『史叢』 21·22, 1977, 286~298쪽).

22) 『益齋亂藁』 卷6 「門下侍郎平章事 判吏部事贈諡威烈公 金公行軍記」 참조.

23) 高柄翊,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69.

24) 高宗 6년 7월에 첩자들의 입에서 蒙軍이 다시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문은 실제로는 칭기스칸(成吉思汗)의 科라즘(花刺子模國, Khorazm) 西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려 침공과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사료 B-2에서, 高宗 3년(1207) 8~9월경 蒙將 木華黎에게 쫓긴 咸平宣撫 蒲鮮萬奴가 10여 만의 무리를 이끌고 黃海 혹은 고려 북계의 어느 해도에 입보하였다는<sup>26)</sup> 것에서 제기해 볼 수 있다. 금나라 함평선 무였던 포선만노는 후에 曷懶路 방면으로 도망쳐 東眞國을 건설한 인물인데, 그가 高宗 3년 당시 木華黎에게 쫓겨 해도입보를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포선만노의 해도입보가 高宗 6년 이후 위기극복책으로서 고려조정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高宗 12~17년 사이는 비록 대몽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고려 측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던 시기였다. 高宗 12년 정월에 귀국하던 몽고사신 著古與가 압록강을 건넌 후 도적에게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나서<sup>27)</sup> 여·몽 사이에서 외교관계가 완전히 두절되었다. 그 사건의 진상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몽고의 의심을 받게 된 고려조정은 그들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高宗 17년(1230)에 이르러서는 몽고 원수 살레탑이 太宗의 명령에 따라 요동의 開州를 먼저 공취한 후 압록강 부근에서 고려 국경을 횡행하던 금나라 장수 哥不愛(哥不靄)를 제거하고 나서<sup>28)</sup> 고려 영토로 진입할 것을

25) 興化道 소속 19개 州·鎭 가운데 撒禮塔의 제1차 침공 당시 黃州·嘉州·郭州·宣州·秦州가 해도에 입보하였음을 통해서, 興化도의 大城入保體系를 점검하였던 高宗 6년 이후에 咸新鎭(義州)·麟州·龍州·鐵州 이남의 주·진에 대해서 해도입보도 조심스럽게 구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함신진·인주·용주·철주 등은 西北大路의 관문이자 최전방이었으므로 해도입보시킬 수 없었고, 寧州(安州) 역시 安北都護府로서 北界營 소재지였으므로 해도입보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26) 池內宏은 木華黎에게 쫓긴 蒲鮮萬奴 등이 무리 10여만을 이끌고 黃海의 어느 섬에 入保하였다고 하였다(池內宏, 『金末の滿洲』, 『滿鮮史研究』 中世 제1책, 吉川弘文館, 1937, 579쪽). 巖井大慧는 황해의 어느 섬이 明末淸初 毛文龍의 거점이 되었던 平北 鐵山郡의 假島라고 주장한 바 있다(巖井大慧, 『蒲鮮萬奴國號考』, 『東洋學報』 19-4, 1932, 70~78쪽). 황해의 섬이든지 鐵州의 가도인지 간에 포선만노가 高宗 3년 8~9월경에 海島入保를 시도하여 몽군의 예봉을 피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27) 癸未 蒙古使 離西京 渡鴨綠江 但 賚國驢糶皮 其餘 紬布等物 皆棄野而去 中途 爲盜所殺 蒙古反疑我 遂與之絕(『高麗史』 卷22 高宗 12년 춘정월 癸未日條).

28) 太宗 命札刺亦兒台 帥北京元帥吾也而 遼王薛闡 義川等州節度使王榮祖 都提挈耶律捏兒等 渡遼 先討哥不靄(『新元史』 卷132 列傳29 札刺亦兒台豁兒赤傳).

였보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저고여피살사건에 대한 외교적 부담감과 고종 17년 이후 요동에서 몽고군의 심상치 않은 전쟁 도발을 포착한 최우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유사시 북계 홍화도에 한정지어 의주·인주·용주·철주의 남부와 청천강 유역에 위치한 주·현들의 해도입보를 입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해도입보책을 구상하였던 시점은 고종 6년 이후이고 그것을 입안하였던 시기는 같은 왕 17년 무렵이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은 같은 왕 18년 제1차 몽고 침입 때의 일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 3. 對蒙戰爭期の 戰略海島

崔氏政權은 고종 17년경 몽고의 예견되는 고려침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계 홍화도에 한정지어 해도입보책을 입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撒禮塔이 제1차 침공을 개시하자마자 같은 왕 18년 9~10월 사이에 해도입보를 실행하였다. 고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섬들이 서·남·동해안에 산재해 있었다. 그렇더라도 이들 섬 전체가 海島入保處로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육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한 해도가 입보처로서 선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몽전쟁기(1231~1259) 『고려사』 고종세가와 지리지에 등장하는 해도는 특수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戰略海島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처를 摘示하면 鐵島·薪島·紫燕島·江華島·席島·蔚陵島·莞島·葦島·葛島·槽島·仙藏島(仙甘島)·大府島·押海島·艾島·昌麟島·神威島·猪島·竹島·松島·德積島 등 20개 도서가 등장한다.<sup>29)</sup>

물론 이 20개 도서는 대몽전쟁기 전체 해도입보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사료 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해도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對蒙講和가 체결된 고종 46년(1259)부터 삼별초항쟁이 종식되는 원종 14년(1273)까지 『고려사』에서 椒島·蘆島·椴島·黑山島·珍島·南海島·濟州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 이들 7개 섬이 비록 관련사서에서 대몽전쟁기 이후에 산견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몽전쟁기에 있어서 해도입보처였음이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대몽전쟁기에 등장하는 20개 도서에 이들 7개 해도를 합산하면 모두 27개 해도입보처가 확인된다. 이번 章에서는 이러한 27개의 해도를 北界·西海道, 東界, 江都 이남으로 3등분하여 전략해도와 그렇지 않은 해도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海島戰鬪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해도의 입지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북계·동계 兵馬使營의 해도 移置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다.

#### (1) 北界·西海道の 戰略海島

대몽전쟁기 북계와 서해도에서 산견되는 해도입보처로는 薪島·鐵島·席島·葦島·葛島·槽島·艾島·昌麟島·神威島 등 9개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대몽강화기(1259~1270)에 발견되는 해도입보처 椒島·蘆島·椴島 3곳도 대몽전쟁기에 해도입보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12개의 섬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12개의 해도 가운데 신도·애도·갈도·위도·신위도·로도·가도는 북계에, 철도·석도·초도·조도·창린도는 서해도에 위치해 있었다. 북계와 서해도의 12개 해도는 최북방의 신도부터 최남방의 창린도까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육지에 가까이 위치해 있던 요해지였으므로 전체가 전략해도의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들 12개 해도가 전략해도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9) 姜在光,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7, 74쪽.

이들 해도를 중심으로 『고려사』 세가에서 주요한 해도전투와 謀叛事件을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계의 신도·애도(용주)<sup>30)</sup> → 갈도(선주)<sup>31)</sup> → 위도·신위도·로도(안주) → 가도(서경 삼화현)로 연결되는 해도입보 방어망은 육지와 가깝고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西北大路를 몽고군에게 내주더라도 나중에 그들을 역습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청천강 하구에 자리 잡은 위도는 천험의 요새로써 몽고군 후방지대를 교란하는 침병과도 같았다.<sup>32)</sup> 위도는 평평하고 넓어서 농사지를 만한 땅이 10리나 존재했지만, 조수가 밀려들어오고 식수를 얻을 수 없어 골치를 앓았었는데, 北界兵馬判官 金方慶이 제방을 쌓아 조수를 차단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요새화에 성공하였다.<sup>33)</sup> 이 섬은 安北都護府 관할의 작은 해도로서 北界兵馬使營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용주의 애도나 선주의 갈도 그리고 서경 삼화현의 가도는 『輿地圖書』의 지도를 살펴보

30) 지금까지 艾島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大東地志』卷24 平安道 龍川 島條와 『輿地圖書』冊30 平安道 定州牧 定州地圖를 살펴보면, 北界에 애도가 2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龍州 관할의 애도이고 다른 하나는 嘉州·定州 경계에 위치한 정주 관할의 애도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高麗史』에 등장하는 애도가 용주 관할 하의 애도일 것으로 본다. 그 이유로서, 용주의 애도는 북방으로 薪島로 이어지고 육지와 가까우면서 단독으로 위치하는데 비해서 가주·정주 경계에 위치한 애도는 다른 여러 섬들과 어우러져 있을 뿐 아니라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전술상으로 용주의 애도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高宗 43년 몽고군이 水戰을 감행하면서까지 침공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31) 葛島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관심권 밖에 있었다. 갈도는 『高麗史』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에 등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大東地志』卷24 平安道 宣川 島條에 갈도가 등장한다. 갈도는 宣州 소속이었던 것이다. 갈도는 현재의 평북 宣川郡 葛里島로 추정되며 이 섬 배후에 身彌島가 위치한다(우진지도문화사, 『原色版 最新 北韓地圖』, 1997, 14쪽).

32) 柳在城, 『對蒙抗爭史』,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8, 141쪽.

33) 有葦島 平衍十餘里 可耕 患海潮不得墾 兵馬判官金方慶 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稔 人賴以活 島無井 汲者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絕 人服其智(『高麗史節要』卷16 高宗 35년 3월조).

면 육지와 매우 가까우면서 섬의 크기가 작는데, 몽군의 이동경로를 감제할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전술적 중요성 때문에 위도와 마찬가지로 애도·갈도·가도에도 중앙의 別抄가<sup>34)</sup> 파견되어 방어 임무를 맡고 있었음이 확인된다.<sup>35)</sup>

반면 서해도의 전략해도는 철도(황주) → 석도·초도(풍주) → 창린도(웅진현)로 연결되면서 江都로 향하는 水路를 방어하고 있었다. 비록 『고려사』에서 등장하지는 않으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역시 그 위치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전략해도의 기능을 수행했으리라 믿어진다. 철도·석도는 대동강 하구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전술적 가치가 큰 섬이었다. 석도 후방에 놓여 있으면서 牧場과 草地를 보유한 초도는 섬 규모가 큰데다가 서해도의 수군기지였으며, 웅진현의 창린도는 강화도 북방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북계 전략해도가 몽군 후방부대를 기습·견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면, 서해도의 전략해도는 몽고군이 水戰을 감행하여 강도를 直攻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sup>36)</sup>

그러면 북계와 서해도의 전략해도에서 여·몽 간에 치러진 수전(해전)의

34) 中央의 別抄는 夜別抄가 중심이 되었겠지만, 神義軍도 高宗 42년 이후에는 北界의 戰略海島에 파견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최근에 신의군이 高宗 42년 4월 이후 편제되었을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姜在光, 「1250~1270年代 神義軍의 對蒙抗戰과 政治活動」, 『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237~239쪽).

35) 艾島에 中央의 別抄가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은 『高麗史』卷24 高宗 43년 冬10月 己巳日條에서 확인된다. 葦島의 경우는 『高麗史』卷24 高宗 45년 5월조에서, 葛島의 경우는 『高麗史』卷24 高宗 46년 3월조에서, 椴島의 경우는 『高麗史』卷26 元宗 10년 冬10月 乙亥日條에서 잘 증명된다.

36) 『元史』와 『新元史』 등에서 蒙軍元帥府 구성을 살펴보면, 蒙古軍은 蒙古人·契丹人·東女真人·漢人·投蒙高麗軍民으로 구성된 혼성군대였다. 따라서 水戰을 구사할 수 있는 거란인이나 한인·투몽고려군민이 몽고군 안에 존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고군은 수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高宗 42년 이후에 거란인·한인·투몽고려군민에 의해서 해도침공이 이뤄졌다고도 생각된다. 특히 고려 해도의 위치와 지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투몽고려군민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蒙軍元帥는 몽고인이었고 몽고군의 절반 정도가 몽고인이었으므로 그들이 고려 수군에 비해서 수전에 익숙하지 못했거나 수전수행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 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과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또한 고려 측의 역습과 北界營의 移置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다음의 사료를 살펴 보면서 여·몽 양측의 전술변화도 살펴보도록 한다.

- C-1. 丙午 席島防護別監 擒蒙兵三人 檻送于京(『高麗史』 卷23 高宗 23년 8월 丙午日條)
- 2.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 七艘 侵葛島 虜三十戶(『고려사』 권24 高宗 41년 2월 己未日條)
- 3.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고려사』 권24 高宗 42년 12월 壬辰日條)
- 4. 戊寅 西北面兵馬使馳報 遣別抄三百 擊蒙兵一千于義州(『고려사』 권24 高宗 43년 夏4月 戊寅日條)
- 5. 己巳 蒙兵 六十人 寇艾島 別抄 盡擒斬之(『고려사』 권24 高宗 43년 冬 10月 己巳日條)
- 6. 蒙兵 陷神威島 孟州守 胡壽被害 妻俞氏 恐爲賊所污 投水而死(『高麗史節要』 卷17 高宗 44년 8월조)
- 7.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 六船 侵昌麟島 瓮津縣令 李壽松 率別抄 擊却之 加壽松 七品(『고려사』 권24 高宗 44년 9월 己巳日條)

몽고가 고려의 해도를 처음으로 공격한 것은 고종 23년(1236) 8월 21일의 석도침공이었는데, 席島防護別監의 역공으로 실패하였고 몽병 3인이 사로잡혔다(C-1). 唐古의 제2차 침공 당시 석도에 海島防護別監이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석도가 전략해도로써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몽병 3인이 포로된 것을 통해서 唐古軍 가운데 극히 소부대가 수전을 감행하며 석도를 침공했다고 생각된다. 석도침공 이후 당분간 몽군의 해도침공 사례가 발견되지 않다가, 몽고 제4차 침공 때인 고종 41년(1254) 2월 16일에 갈도침공이 엿보인다. 제4차 침입군 부원수 阿母侃이 忠州의 대격전에서 패배한 뒤 철군하여 북계에 주둔하면서 7척의 전함으로 선주의 갈도에 침공하여 民戶 30호를 잡아간 것이다(C-2). 갈도침공은 이후 몽군이 대담하게도 수전을 감행하여 전략해도를 침략하는 효시가 되었다. 이는 대고려

강경론자 몽고 憲宗의 즉위와 더불어 몽고군의 적극적인 전략변화, 곧 해도침공이 강화되는 측면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제5차 침입을 총지휘한 車羅大가 자신의 2차 고려침략 때인 고종 42년(1255)에 이르러 서해안 도서들을 공격하여 모조리 함락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대대적인 해도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른바 몽고 제5-(2)차 침공은 해도침공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작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sup>37)</sup> 차라대는 같은 해 12월에 전함을 건조하여 서해안의 槽島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C-3). 조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주·현에 소속된 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필자 소견으로는 조도와 발음이 유사하면서 전략해도로써 중요하였던 서해도 풍주의 초도가 아닌가 한다.<sup>38)</sup> 초도가 군사전략 상으로 중요했다는 근거는 2가지 사례의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하나는 원종 즉위년(1259) 7월에 北界別抄都領郎將 李陽著가 군사를 거느리고 초도로 옮기려 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원종 11년(1270) 1월에 무인집정 林衍이 몽고의 재침과 원종의 開京還都를 막기 위해서 神義軍을 초도에 배치시켰다는 점이다. 이양저가 초도에 배치시키려 했던 자기 휘하의 군사는 北界別抄였고 임연이 초도로 보낸 군사집단은 신의군이였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초도에 별초군을 배치시켜 놓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초도가 전략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가진 섬이자 군사기지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조도, 곧 초도에 배치된 별초군이 수전을 감행하였던 車羅大軍을 격퇴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37) 車羅大의 海島侵攻 작전은 江都까지 直攻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은 그가 여러 차례 江華島 對岸에서 길게 군사들을 늘어세우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잘 확인된다.

38) 槽島는 흑시 椒島가 아닌가 생각된다. 초도는 현재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에 속해 있는 섬이다. 육지에서 12km 떨어져 있고, 면적은 32.56km<sup>2</sup>이며, 해안선 길이는 47km에 달하는 비교적 큰 섬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초도가 보이는데 豊川都護府의 북쪽 40리에 있었고 牧場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椒島 府北四十里 海中 有牧場(『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 豊川都護府 山川條). 현재 초도에는 과거 2002년 6월 서해교전을 발발케 하였던 북한 해군 제9전대의 기지가 존재한다.



차라대군이 해도침공을 본격화하자 안북도호부에 있던 북계영은 고종 43년 초에 창린도로 그 근거지를 옮겨<sup>39)</sup> 북계·서해도의 해전에 관여하였다. 최씨정권이 북계영을 창린도로 옮긴 것은 차라대가 서해도 鹽州나 그 근처에서 강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아울러 군사명령을 신속정확하게 전략해도들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창린도는 서해도 웅진현에 소속되어 있어<sup>40)</sup> 강도와 그다지 멀지 않았뿐더러 서해도의 전략해도였던 석도·초도와 긴밀히 연락할 수 있었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창린도로 북계영을 옮긴 西北面兵馬使는 차라대군이 멀리 전라도 방면으로 남하하여 押海島 등을 침공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몽군 후방부대(보급부대)를 기습하였다. 서북면병마사가 別抄 3백을 義州로 급파하여 그곳에 주둔 중인 몽병 1천을 격파하였던 것이다(C-4). 이러한 후방 역습작전은 강도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별초 3백이 급습하였던 몽군은 東京總管 松山이 거느린 후방의 보급부대가 분명한데, 이들은 고려군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이었고 순식간에 궤멸되고 말았다. 결국 송산은 패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 고종 43년 10월에 강도조정에 투항해 왔다.<sup>41)</sup>

몽고 제5-(2)차 침입이 거의 종결될 무렵, 차라대는 북계로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전략해도였던 애도를 침공케 하였다. 고종 43년 10월 12일 몽병 60명이 전함을 타고 애도를 침공하였지만 그곳에 주둔한 고려 별초군이 격

3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2 平安道 安州牧條. 高宗 43년경에 安北都護府가 昌麟島에 入保하였는데 그 이전에 北界兵馬使營이 北界의 어느 섬에 入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종 43년에 안북도호부가 창린도에 入保하였다고 한 것은 안북도호부 軍民들과 북계병마사영이 이주한 것을 지칭할 것이다.

40) 『輿地圖書』冊21 黃海道 瓮津都護府 地圖와 山川條를 보면, 昌麟島가 瓮津 官衙 바로 남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었음이 확인된다. 웅진도호부는 고려시대에는 瓮津縣이었으므로 창린도는 웅진현 소속이었다.

41) 甲申 車羅大管下 東京總管 松山 率妻及僮從五人 來投 崔沆 館待甚厚 問其來由 松山云 非以蒙古危亡 而爾國強盛也 我有三罪 以此來耳 車羅大 入南界 以我鎮義州 不能固守 一也 又使我 勸農畜糧 而禾稼不登 倉庫虛耗 二也 聞高麗兵來 遣七十人 刺探 無一人返者 三也 於是 賜 宅一區 及米穀 器物 布帛 奴婢各三口(『高麗史』卷24 高宗 43년 冬10月 甲申日條).

퇴시켰고 몽병 60인은 모두 주살되었다(C-5). 이로써 서해안 해도 장악을 공언하였던 차라대는 단 1개의 전략해도도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해도침공 작전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蒙軍元帥府는 고종 44년의 제5-(3)차 침입에 있어서 작전범위를 좁혀서 북계와 서해도의 전략해도를 공략한다는 전략개념을 세웠다. 차라대는 주력부대를 북계에 주둔시킨 채 청천강 하구의 위도·로도·신위도 공략에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앞의 사료 C-6을 살펴보면, 차라대군이 신위도를 공격하여 결국 함락시켰고 孟州守 胡壽가 피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위도 함락은 몽군이 해도침공에서 최초로 거둔 승리였고 강도조정 측에게는 대단한 충격과 불안감을 던져주었다. 신위도 근처의 위도·로도에 입보한 주현민과 별초군은 몽군의 침략을 막아낸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대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 개라도 북계의 전략해도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제 해도 입보에 의한 항전책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배태시켰다.

한편 차라대는 고종 44년 9월에 전선 6척으로 하여금 북계영이 위치한 창린도를 침공케 하였다. 이때 몽군은 강도를 직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린도를 침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瓮津縣令 李壽松이 별초를 인솔하고 수전을 감행하였던 몽군 전선 6척을 격퇴시켰다(C-7). 웅진현령 이수송이 몽군과 해전을 치러 승리한 점으로 보아 본래 창린도에는 웅진현민이 입보하고 있었다. 비록 창린도에 북계영이 옮겨와 있었지만 현지의 지형과 지리에 익숙한 이수송이 중앙의 별초군을 이끌고 몽군을 迎擊하여 격멸시켰던 것이다. 웅진현령 이수송은 몽군을 요격하는 작전에 자원했고 북계병마사는 흔쾌히 그에게 별초군을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몽군의 해도침공은 고종 43~44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어 서해안 전략해도와 강도를 위협하였다. 북계·서해도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민과 별초군에 의해서 몽군의 해도침공은 대부분 격퇴되었으나 신위도가 함락됨으로써

<표 1> 대몽전쟁기 北界·西海道 海道입보처와 전략해도

해도 명칭	발견 시기	대몽항쟁기 소속 주·현	현재 행정구역	해도전투 승전사례	해도전투 패전 몽고군에 투항	전략 해도	입보한 주·현 (입보한 시기)
薪島	대몽 전쟁기	북계 龍州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			○	義州(고종 18)
艾島	"	북계 용주	평안북도 신도군	몽병 60명 誅殺 (고종 43. 10)	驛人:몽고에 투항 (고종 46. 3)	○	
葛島	"	북계 宣州	평안북도 선천군		民戶 30호 포로됨 (고종 41. 2) 驛人:몽고에 투항 (고종 46. 3)	○	
葦島	"	북계 安州	평안남도 안주시		博州人:몽고투항 (고종 45. 5)	○	博州(고종 18)
神威島	"	북계 안주?	평안남도 안주시		몽고군에 함락됨 (고종 44. 8)	○	孟州(고종 18)
鐵島	"	서해도 黃州	황해북도 황주군 철도리			○	黃州와 鳳州 (고종 18)
席島	"	서해도 豊州	황해남도 과일군 석도리	몽고병 3인 포로 (고종 23. 8)		○	豊州(고종 18?) 北界營(고종 45)
槽島	"	?	?	몽군 戰船 격퇴 (고종 42. 12)		○	
昌麟島	"	서해도 瓮津縣	황해남도 웅진군 창린도리	戰船 6척 격퇴 (고종 44. 9)		○	瓮津縣(고종 18?) 北界營(고종 43)
椒島	對蒙 講和期	서해도 豊州	황해남도 과일군 초도리			○	豊州(고종 18?)
蘆島	"	북계 안주	평안남도 안주시			○	德州(元宗 1)
椴島	"	북계 三和縣	평안남도 남포직할시			○	三和縣(고종 18?) 北界營(원종 대)

해도입보책의 전술적 장점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북계영이 소재한 창린도가 수전을 감행한 몽군에게 공격당하게 되고 나서는 북계병마사영이 고종 45년경 대동강 하구의 요새였던 석도로 옮겨가

지<sup>42)</sup>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최씨정권으로서는 지나긴 몽고와의 전쟁에서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하게 되었고 북계·서해도의 전략해도들을 수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종 44년 후반부부터 崔氏政權이 적극적인 대몽강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東界의 戰略海島

대몽전쟁기에 『고려사』에서 발견되는 東界의 해도는 猪島·竹島·松島·蔚陵島 등 4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和州 관할의 저도와<sup>43)</sup> 宜州(德源) 관할의 죽도는<sup>44)</sup> 동계병마사영 소재지 安邊都護府(登州)에 인접해 있었고, 화주 이북 15州民이 입보한 경력이 있으므로 전략해도로서 규정할 수 있다. 高城縣에서 가까운 송도 역시 고성현민이 입보하였고 다수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전략해도 가운데 하나로 보아 무방하다. 반면 울릉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몽군을 역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침공당할 우려도 거의 없었으므로 전략해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계영에 인접해 있는 저도·죽도와 송도가 전략해도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고려사』에서 북계 주·현이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도에 입보하여 항전했던 반면에 동계 주·현은 고종 44년 이전까지 해도에 입보했다는 기

42) 金之岱가 北界知兵馬使에 임명된 것이 高宗 45년 5월의 일이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지은 詩文에 '北界營 在 席島作'이라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여기서 北界營이 席島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고종 43년에 安北都護府가 昌麟島에 입보했다고 했으므로, 창린도에 있었던 북계영이 고종 45년 이전 어느 시기에 창린도에서 석도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

4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8 咸鏡道 永興大都護府 山川條. 『大東地志』 卷19 咸鏡道 永興 島嶼條.

44) 『高麗史』 卷58 地理志3 東界 宜州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9 咸鏡道 德源都護府 山川條. 『輿地圖書』 冊33 德源府 山川條. 『大東地志』 卷19 咸鏡道 德源 島嶼條.

사가 全無하다. 그러한 까닭은 몽고의 주타격 루트가 북계였으므로 보조타격 방향에 위치한 동계에는 몽군의 부용세력이었던 東眞軍이 소수의 병력으로 남침했기 때문이었다. 몽고 제1~3차 침입기 동안 동계 방면은 북계·서해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몽고군 주력부대의 침략에 직면하지 않았으므로 해도에 입보하여 항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也古의 제4차 침공으로 동계 방어선이 점차 와해되기 시작되었고,<sup>45)</sup> 설상가상으로 車羅大의 제5차 침입 이후에는 몽군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공격으로<sup>46)</sup> 안변도호부 등주마저 위태로워져서 해도입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D-1. 高和定長宜文等 十五州人 徙居猪島 東北面兵馬使愼執平 以爲猪島城大人少 守之甚難 遂以十五州 徙保竹島 島狹隘 無井泉 人皆不欲 執平強驅而納之 人多逃散 徙者十二三(『高麗史節要』 卷17 高宗 45년 冬10月條)

2. 東眞國 以舟師 來圍 高城縣之松島 焚燒戰艦(『高麗史』 卷24 高宗 45년 12월 丙子日條)

위의 사료 D-1에서, 동북면병마사 愼執平이 저도의 성이 큰데 비해서 인민 수가 적어 심히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高州·和州·定州·長州·宜州·文州 등 15州人을 죽도에 입보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죽도는 섬이 작고 우물과 샘물이 없어 15주인이 입보하기를 꺼려하여 대부분 도망하였고 입보한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저도는 생활여

45) 『高麗史』 卷24 高宗 40년 4월 甲寅日條 참조. 高宗 40년 也古의 제4차 침공 당시, 蒙古憲宗의 동생 松柱가 이끄는 몽고·동진 연합군 1萬이 東界 방면을 강타하였다. 송주 휘하의 몽고군에 의해 이 당시 襄州(襄陽) 權金城이 함락되었고 몽군은 溟州(江陵)까지 육박하였었다. 이전까지 찾아보기 힘든 동계 공략이었던 것이다.

46) 車羅大의 제5-(1)차 침공(高宗 41~42년), 제5-(3)차 침공(高宗 44년), 제5-(4)차 침공(高宗 45~46년) 당시, 東界는 몽군에게 연속적으로 侵寇되었다. 安邊都護府 登州마저 몽군을 방어해 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高宗 45년 11월경에는 溟州까지 함락되었던 것이다.

건은 만족할 만 했으나 전술적으로 취약했고, 죽도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반면에 전술적 장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전에 동북면병마사는 高宗 43년 5월 登州城 안에 식수·식량이 고갈되었다고 강도조정에 보고하였고 최씨정권으로부터 해도입보 명령을 하달 받았다. 등주성은 몽고군의 점령 목표로 설정되어 야고의 제4차 침입과 차라대의 제5-(1)차 침공 때 집중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守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차라대의 제5-(3)차 침입이 종결된 高宗 44년 10월 이후에 동계병마사영이 저도로 옮겨갔다고 여겨진다.<sup>47)</sup> 이때 고주·화주·정주·장주·의주·문주 등 15개 주민들이 동계병마사 지휘 하에 저도로 입보하였던 것이다. 15주 가운데 6개 주민이 『고려사』에 밝혀져 있으나 나머지 9개 주·진은 德州·元興鎮·寧仁鎮·耀德鎮·龍津鎮·永興鎮·靜邊鎮·鎮溟縣·長平縣으로 생각된다. 이들 9개 주·진·현은 안변도호부와 인접해 있고 동계 州鎮軍 편제상 都領이 모두 1인씩 존재하였으며 行軍 수가 최소한 250명이 모두 넘는다<sup>48)</sup> 사실에서 신빙성이 있다. 15개 주민과 더불어 저도에 입보한 동북면병마사 신집평은 전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저도를 포기하고 1년만인 高宗 45년 10월경에 죽도로의 전격적인 해도입보를 결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계여건과 북계병마사의 전술 사이에서 고뇌하던 15개 주민들이 대부분 도망함으로써 죽도로의 입보는 큰 전술적 효과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D-2는 동계 방면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몽군의 해도침공 사례이다. 몽고군의 부용세력이었던 東眞國 水軍이 高宗 45년 12월 1일에 고성현의

47) 登州城의 海島入保 명령은 이미 高宗 43년 5월 26일에 하달되었으나, 安邊都護府가 소재한 登州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해도입보가 지연되었다가 車羅大의 제5-(3)차 침입이 종식된 高宗 44년 10월 이후에 등주를 포함하여 15州의 猪島入保가 추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한 근거는 高宗 44년 5월에 東眞騎兵 3千이 등주성을 공격했을 때 東北面兵馬使가 신속히 江都朝廷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서 아직 해도입보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48) 『高麗史』 卷83 兵志3 州縣軍 東界條. 李基白, 앞의 논문,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1999), 250~251쪽의 <표 3> 東界 州鎮軍 一覽表 참조.

송도까지 남하하여 정박 중이던 고려 전함을 불태웠다는 것이다. 동진군이 죽도를 침공하지 않고 그 이남의 송도를 직접 공격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 죽도에의 입보를 거부한 고주·화주 등 15주인과 죽도입보민이 점차 반란을 일으키고 몽고에 투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죽도를 침공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 龍津縣人 趙暉와 定州人 卓靑이 반란을 일으켜 화주 이북의 땅을 몽고에 붙임으로써 화주에 몽고의 직할령인 雙城總管府가 두어졌다.<sup>49)</sup> 둘째, 죽도 이남의 전략해도였던 고성현의 송도를 침공하여 전함을 불태워버림으로써 송도입보민을 고립시키고 몽고에 대한 역습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몽고군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대몽전쟁기 말엽 동계의 해도입보가 한계상황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2> 대몽전쟁기 東界 해도입보처와 전략해도

해도 명칭	발견 시기	대몽항쟁기 소속 주·현	현재 행정구역	해도전투 승전사례	해도전투 패전 몽고에 투항	전략 해도	입보한 주·현 (입보한 시기)
猪島	대몽 전쟁기	동계 和州	함경남도 금야군 저도리			○	동계 15州人 (고종 44)
竹島	"	동계 宜州	함경남도 덕원군		趙暉·卓靑이 반란을 일으켜 和州 이북을 몽고에 붙임	○	동계 15州人 (고종 45)
松島	"	동계 高城縣	강원도 고성군		東眞國 水軍이 松島의 전함을 불태움	○	高城縣 (고종 44?)
蔚陵島	"	동계 蔚珍縣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	蔚珍縣 외 (고종 33)

49) 龍津縣人 趙暉 定州人 卓靑 以和州迤北 附蒙古 蒙古置雙城總管府于和州 以暉爲總管 靑爲千戶(『高麗史』卷24 고종 45년 12월조).

(3) 江都 이남의 西·南海岸 戰略海島

강도 이남의 서·남해안에 위치하면서 대몽전쟁기 『고려사』에서 나타나는 해도로는 江華島·紫燕島·仙藏島(仙甘島)·大府島·押海島·德積島·莞島 등 7개 섬이다. 대몽강화기에 눈에 띄는 해도는 黑山島가 유일하며, 삼별초항쟁기(1270~1273)에 등장하는 도서는 珍島·南海島·濟州 등 3개가 주목된다. 모두 11개의 해도입보처가 『고려사』에서 산견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해도는 서·남해안 해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섬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고려사』에서 등장하는 11개의 해도입보처 가운데 육지에서 거리가 멀고 몽고군에게 침략당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덕적도·혹산도·제주 3島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섬은 대몽전쟁기에 전략해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강화도·자연도·선장도·대부도·압해도·완도·진도·남해도는 몽고군의 해도침공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해도는 자체적으로 대몽전투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8개 섬은 전략해도로서 보아 손색이 없다.

8개의 전략해도 가운데 강화도는 강도로서 임시수도였다.<sup>50)</sup> 자연도는 楊廣道 도서였는데 仁州 관할이었으며,<sup>51)</sup> 대부도·선장도(선감도)는 양광도 도서로서 仁州 唐城郡 관할이었다.<sup>52)</sup> 압해도·진도·완도는 전라도의 서·남해안 전략해도였는데 압해도는 靈光郡 屬郡 壓海郡에, 진도는 羅州 珍島縣에, 완도는 長興府 耽津縣에 각기 소속되어 있었다.<sup>53)</sup> 남해도는 경상도 남해안 섬으로써 南海縣 관할이었다.<sup>54)</sup> 본래 강도 이남의 서·남해안 해도

50) 이 글에서는 강화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동도와 석모도 등을 강화도 부속 도서로 보았으며 그것을 독립적인 戰略海島로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51) 『高麗史』卷56 地理志1 楊廣道 仁州條 참조.

52) 『高麗史』卷56 地理志1 楊廣道 仁州 唐城郡條 참조.

53) 『高麗史』卷57 地理志2 全羅道 長興府 耽津縣條에 莞島가 등장하고, 同志 靈光郡의 屬郡인 壓海郡 자체가 押海島이며, 同志 羅州 珍島縣은 珍島를 지칭한다.

54) 『高麗史』卷57 地理志2 慶尙道 南海縣條.

는 몽고 제4차 침입까지 별다른 침략위협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차라대의 제5-(2)차 침입 때 몽군의 해도침공에 노출되면서 일부 도서가 그들의 침략에 응전하기 위한 전략해도로 주목받게 되었다. 몽군의 해도침공이라는 전술변화는 서·남해안 전략해도를 함락시켜 下三道로부터 강도로 운송되는 租稅와 貢賦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과 연관이 있었다. 전략해도 진도·남해도는 그 자체가 최씨의 農場이었으므로<sup>55)</sup> 농장에서 소출되는 곡식을 식량·군량미로서 섬에 저장해 놓고 장기항전태세를 유지했을 것이다. 특히 分司大藏都監이 설치된 남해도의 경우 八萬大藏經 조판사업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sup>56)</sup> 따라서 진도·남해도는 대몽전쟁기에 전쟁수행보다는 전쟁지원 측면에서 보다 더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차라대가 해도침공을 공언하였던 몽고 제5-(2)차 침입 때 현재의 충청남도 아산만 일대의 해도와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도서에서 여·몽 간에 피할 수 없는 일대 해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대몽전쟁기 강도 이남 서·남해안 전략해도의 대몽전투 사례를 살펴보고, 최씨정권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E-1. 丁巳 王聞 蒙古兵 謀攻諸島 遣 將軍 李廣 宋君斐 領舟師三百 南下 禦之(『高麗史』 卷24 高宗 43년 春正月 丁巳日條)

55) 崔氏政權의 農場은 食邑 晉州 이외에 경상남도의 丹城·河東·南海島, 전라남도의 昇州·和順·寶城·康津·珍島, 전라북도의 臨陂, 그리고 江華島에 散在하여 도합 11농장이 존재하였다(尹龍燾, 앞의 책, 1991, 215~221쪽). 이 가운데 남해안에 존재한 농장은 전라남도의 승주·화순·보성·강진·진도 경상남도의 진주·단성·하동·남해도 농장으로 서 모두 9개나 된다. 그러므로 남해안 지역에 산재한 농장이 최씨가 농장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八萬大藏經 조판을 위해 分司大藏都監이 설치되었던 남해도와 萬全(崔沆)이 한때 용장사 주지로 있었던 진도에 최씨의 농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섬들이 최씨의 對蒙抗戰과 관련하여 海島入保處이자 전투지원을 담당할 해도였음이 여실히 증명되는 셈이다.

56)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 『滿鮮史研究』 中世 제2책, 吉川弘文館, 1937, 568~569쪽; 閔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韓國學論叢』 1, 1978, 44~47쪽; 俞瑩淑, 「崔氏武臣政權과 曹溪宗」, 『白山學報』 33, 1986, 179~182쪽.

2. 戊辰 玄風縣人 四十餘艘 避亂 泊近縣江渚 蒙兵 迫獲男女財物 殺勸農使金宗敘(『고려사』 권24 高宗 43년 夏4月 戊辰日條)
3.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 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고려사』 권24 高宗 43년 夏4月 庚辰日條)
4. 庚寅 忠州道巡問使 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고려사』 권24 高宗 43년 夏4月 庚寅日條)
5. 六月 庚申 朔 遣 將軍李阡 率舟師 二百餘人 禦蒙兵 于南道(『고려사』 권24 高宗 43년 6월 庚申日條)
6. 郎將 尹椿 自蒙古軍來 椿叛入蒙古有年 至是逃還 言曰 諸將勸車羅大退屯西京 辭以無詔曰 吾寧死於此 豈可退哉 車羅大 嘗將舟師七十艘 盛陳旗幟 欲攻押海 使椿及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 置二砲於大艦 待之 兩軍相持未戰 車羅大臨岸望之 召椿等曰 我船受砲 必糜碎 不可當也 更令移船攻之 押海人 隨處備砲 故蒙人 遂罷水攻之具 爲今計 宜屯田島內 且耕且守 清野以待 策之上也 崔沆然之 給椿家一區 米豆三百斛 超授親從將軍(『高麗史節要』 卷17 高宗 43년 6월조)

차라대는 강도로 향하는 漕運路를 차단하여 고려조정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중국에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종 43년 초부터 전라도의 전략해도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몽군원수부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조정은 같은 해 1월 25일에 장군 李廣과 宋君斐에게 水軍 3백을 주어 전라도 방면으로 급파하였다(E-1). 이광과 송군비가 수군을 거느리고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간 것은 이미 몽군 선봉대가 같은 해 1월에 天安을 거쳐 전라도로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장군 송군비는 長城 笠巖山城에 입보하여 몽군의 해도침공을 견제하는 가운데 같은 해 3월 입암산성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sup>57)</sup> 전라도의 어느 전략해도에 머물렀을 이광은 戰船을 모으고 수리하는 한편 대포를 설치하는 등 해도방어체계를 갖추 나갔다고 생각된다.<sup>58)</sup>

57) 『高麗史』 卷24 高宗 43년 3월 己未日條.

당시 몽고 제5-(2)차 침입군은 전체 부대를 4軍으로 나누어 각기 공격목표를 확정하였다. 그것은 몽군의 공격루트를 통해서 그 대강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제1군은 이미 고종 42년 10월에 大院嶺을 넘어 경상도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제2군 선봉대는 같은 왕 43년 1~2월에 전라도에 도착하여 이후 입암산성전투를 치렀으며 차라대가 지휘하는 제2군 본대는 4월경에 전라도 담양에 주둔하고 전라도 해도침공에 착수하였다. 제3군은 양광도에 남아 西軍은 아산만 일대의 해도를 공략하고 東軍은 충주 권역을 침공하였다. 나머지 제4군은 북계·서해도에 일정한 군사가 남겨져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급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5-(2)차 침입군의 작전개념에 비춰볼 때, 사료 E-2는 경상도방면으로 진출한 몽고 제1군이 경상도민의 해도입보를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해 4월 8일에 玄風縣 사람들이 40척의 배를 타고 강가에 정박하다가 추격한 몽병에게 남녀를 약탈당했으며 勸農使 金宗叙는 피살되었다. 이 당시 崔沆政權의 해도입보 명령에 따라 권농사 김종서는 縣民을 인솔하여 40척의 배에 나눠 타고 남해안 해도로 피난을 떠난던 중이었음에 틀림없다. 고종 41년 몽고 제5-(1)차 침입 당시 경상도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강도조정으로서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상도민을 남해안 해도에 안전하게 입보시키려고 하였다. 해도입보를 추진하던 도중에 현풍현민은 몽군 제1군의 기습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대부도와 牙州 해도에서는 몽고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고종 43년 4월 20일에 大府島別抄가 仁州의 蘇來山 아래로 나아가 몽병 1백여 명을 쳐서 물리쳤음이 확인된다(E-3). 대부도별초는 대부도에 입보한 州縣別抄軍일 것이다. 다만 육지와 가까운 대부도가 강도 남방에 위치한 큰 섬이었기 때문에 아별초 등 중앙군이 그곳에 파견되어 대부도별초

58) 宋君斐와는 다르게 李廣이 이후 사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押海島 등에 머물면서 戰艦을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등 입보민에게 海島入保抗戰을 독려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군과 연계하여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도별초는 인주 소래산에 주둔한 몽고 제3군 서군을 공격했음에 틀림없다. 몽고 제3군 서군은 대부도나 아주 해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함을 건조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도별초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육지로의 기습상륙전을 전개하여 몽군을 물리쳤던 것이다. 대부도별초군의 승전은 앞서 살펴본 고종 43년 4월 18일 의주전투 승리에 연속되는 만큼 고려 측의 대반격작전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대부도별초의 승전에 연이어 고려군의 대반격작전에 忠州道巡問使 韓就도 가세하였다. 같은 해 4월 30일에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 해도에서 전선 9척으로 수전을 감행한 몽병을 전멸시켰다(E-4). 그런데 몽병이 한취의 전선을 逆擊한 것을 보면 아주 해도에 대해서 수전을 감행한 것이 분명하고, 4월 동안 쌍방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몽병의 역격에도 불구하고 한취는 입보민과 勇戰하여 그들을 섬멸하였다. 한취가 입보한 아주 인근의 해도는 지리적 입지나 전략적 조건을 염두에 둘 때, 아산만 입구의 난지도·육도·풍도·입화도·제부도·선장도(선감도) 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9)</sup> 牙州民은 이들 섬에 입보했을 것이고 天安府民은 선장도(선감도)에 입보하였다.<sup>60)</sup> 아주민과 천안부민은 충주도순문사 한취의 지휘 하에 역공해 왔던 몽병을 해상에서 격퇴시켰다. 패전한 몽군은 양광도에 주둔한 제3군 서군 가운데 한 부대였다. 이들은 아주 연해의 전략해도를 공함시키라는 차라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주 연해의 섬들은 강도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몽군이 강도 조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도조정

59) 德積島 群島는 牙州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난지도·육도·풍도·입화도를 거쳐야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몽고병이 水戰을 통해서 逆擊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주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난지도·육도·풍도·입화도 등에 牙州民이 입보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60) 天安府民은 당시 大府島 옆에 부속되어 있는 仙藏島(仙甘島)에 入保해 있었음이 『高麗史』 卷56 地理志1 楊廣道 天安府條를 통해서 확인된다.

과 충청도·전라도를 단절시켜 조운체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전략적 가치가 컸다. 따라서 아주 해도의 주도권 쟁패를 놓고서 여·몽 간에 치열한 전투가 고종 43년 4월 이후 지속되었던 것이다.

강도조정은 같은 해 6월 1일에 장군 李阡을 시켜 수군 2백을 거느리고 南道(충청도)로 내려가 몽고군을 방어케 하였다(E-5). 한취가 비록 아산만 해전에서 승리하였지만 그것은 국지전이었고 지속되는 몽고 제3군 서군의 해도공격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러므로 중앙군을 급파해서 몽고군의 의도를 저지시키려 했던 것이다. 장군 이천은 같은 해 6월 23일에 溫水縣戰鬪에서 몽고군 수십 명을 베고 빼앗겼던 고려 남녀 1백여 명을 탈환하였다.<sup>61)</sup> 그가 남녀 1백여 명을 탈환하였던 사실을 통해서, 몽군 제3군 서군이 이전에 운수현을 공격하여 현민을 포로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43년 4월에 접어들어 고려군의 대반격작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대는 전라도 전략해도에 대한 침공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70척이나 되는 전함을 준비하여 압해도침공에 나섰다(E-6). 그는 西京으로 물러나자는 副將들의 건의를 물리치면서 몽고황제의 조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해도침공을 강행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4월 12일에 담양에 주둔했던 차라대는 군영을 務安縣의 ‘古水營’ 곧 ‘多慶鎭城址’로 옮겨<sup>62)</sup> 4월 중순~5월 내내<sup>63)</sup> 전선건조를 독려했고 6월 초에 압해도침공을 단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몽고 수군은 投蒙輩 尹春과 몽고관인 1명이 지휘했다. 그런데 압해도입보민이 大艦에 대포 2문을 장착하고<sup>64)</sup> 몽고 수군이 다가오기를

61) 壬午 將軍李阡 與蒙兵戰于溫水縣 斬數十級 奪所虜男女 百餘人 崔沆 以銀六斤 賞士卒(『高麗史』卷24 고종 43년 6월 壬午日條).  
 62) 尹龍琳, 앞의 책, 1991, 323~324쪽. 木浦大博物館, 『務安郡의 文化遺跡』, 1986, 99~100쪽.  
 63) 車羅大의 押海島侵攻 준비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4월 12일 이후이며 전선건조 기간 1개월을 고려하면 압해도침공은 5월 중순 이후에 이뤄졌을 것이다.  
 64) 大砲 2문을 장착한 大艦이 단지 1척이었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고작 1척의 대함으로 몽고 水軍 70여 척을 방어해 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들다. 아마 생각건대 押海島入保民과 別抄軍은 여러 척의 대함에 대포 2문씩을 설치하고 몽고 수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는 의미일 것이다.

<표 3> 대몽전쟁기 江都 이남의 서·남해안 해도입보처와 전략해도

해도 명칭	발견 시기	대몽항쟁기 소속 주·현	현재 행정구역	해도전투 승전사례	해도전투 패전 몽고에 투항	전략 해도	입보한 주·현 (입보한 시기)
江華島	대몽 전쟁기	양광도 江華縣 ⇒ 江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	開京(고종 19) 南京·廣州(고종 22)
紫燕島	"	양광도 仁州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	宣州와 昌州(고종 18)
大府島	"	양광도 仁州 唐城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大府島別抄가 몽병 1백 아습·격퇴(고종 43. 4)		○	仁州·唐城郡(고종 19?)
仙藏島	"	양광도 仁州 唐城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	天安府(고종 43)
德積島	"	양광도 仁州 唐城郡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x	西京·黃州(고종 46)
押海島	"	전라도 靈光郡 壓海郡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압해도입보민이 차라대군을 격퇴(고종 43. 6)		○	羅州·咸平·務安(고종 43?)
莞島	"	전라도 長興府 耽津縣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	耽津縣(고종 34)
黑山島	대몽 강화기	전라도 羅州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x	
珍島	삼별초 항쟁기	전라도 羅州 珍島縣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삼별초항쟁		○	삼별초정부(원종 11)
南海島	"	경상도 南海縣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삼별초항쟁		○	삼별초군(원종 11)
濟州島	"	耽羅郡, 濟州	제주특별자치도	*삼별초항쟁		x	삼별초군(원종 12)

※ 牙州 海島=忠州道巡問使 韓就가 전선 9척으로 몽고병을 격퇴시킴(고종 43년 4월)

기다리자 차라대는 공격을 보류하였고 압해도 연해안에도 모두 대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결국 침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압해도해전은 압해도입보민이 단독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인가. 필자 소견으로는 압해도해전에는 고종 43년 1월에 전라도 해도로 급파된 장군 이광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와 더불어 압해도에 입보한 羅州·務安·咸平 수령들 그리고 일반 주현민이 일치단결하여 다수의 전함을 갖추고 대포를 준비하여 차라대의 수전 감행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고종 42~43년 사이 몽군의 적극적인 해도침공에도 불구하고 강도 이남의 서·남해안 전략해도는 몽군의 수전 감행을 격퇴시켰으며 단 1개의 전략해로도 함락되지 않았다. 전략해도에 입보한 별초군과 주현민의 강렬한 대몽항전은 오히려 몽군원수부로 하여금 해도침공을 강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서경으로 철군해야 하느냐를 놓고서 불협화음을 야기시켰다. 또한 고종 43년 4월경부터는 고려군의 대반격작전이 북계·양광도와 아주 해도에서 동시에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그 동안 열세에 몰렸던 전세를 반전시켰고 몽고군은 최초로 계획했던 해도침공을 점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4. 맺음 말: 海島入保策 固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海島入保策은 국가에서 이미 지정한 섬에 州·縣 단위로 입보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 대몽항전 방식의 결정체였고 해상에서 대군을 조직하여 몽고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을 격퇴할 수 없는 일정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도입보책의 고수를 통해서 崔氏政權은

여러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해도입보책의 장점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연해안 州縣民과 식량·무기·군수물자의 보존이었다. 해도입보를 추진함으로써 水戰에 비교적 약한 蒙軍의 단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도에 식량과 군수물자를 옮겨놓을 수 있었고, 연해안 백성들을 입보시켜서 그들의 목숨을 보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육지의 모든 백성들이 해도에 피난한 것이 아니라 주로 兩界의 軍民과 연해안의 주현민이 해도에 입보하였음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연해안 주현민이라고 하더라도 州邑(州治)에 거주하던 수령·관리와 백성들 그리고 주현별초군이 최우선적으로 해도에 입보하였으리라 믿어진다.<sup>65)</sup> 淸野戰術에 입각하여 해도입보책을 구사하였으므로, 주읍에 거주하지 않은 屬縣 백성들은 인근 산성이나 험준한 山谷 그리고 천연동굴 등에 은신했을<sup>66)</sup>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도에 입보한 주현민은 때때로 야별초·주현별초군 등과 함께 몽군 후방부대를 역습할 수 있었다. 몽고군 주력부대가 서해도를 거쳐 양광도 이남으로 내려갔을 때 해도입보민과 별초군이 몽군의 후방부대나 보급부대를 기습하여 큰 피해를 안겨준 적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종 43년 4월 18일에 서북면병마사가 別抄 3백을 후방지대인 義州로 상륙시켜 東京總管 松山 휘하의 몽병 1천을 기습하여 격멸시킨 것이나, 같은 해 4월 20일에 大府島別抄가 야간에 仁州 경내의 蘇來山으로 나아가 몽병 1백 명을 패주시킨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 준다. 이들 별초군은 전라도 해도를 공략 중이던 車羅大軍의 허점을 노려 몽군 후방의 보급부대를 공격하여 보

65) 흔히 海島入保하면 단위 州縣民 전체가 섬으로 피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 아무런 生活與件도 갖추어지지 않은 島嶼에 많은 수의 주현민이 한꺼번에 입보했을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더욱 더 어려운 民生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마도 州治의 官吏와 백성 그리고 別抄軍 정도가 관(공)문서·식량·군수물자·무기 등을 지니고 해도에 입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66) 『高麗史』卷24 고종 45년 8월 乙巳日條를 보면, 西海道의 천연동굴이자 요새였던 嘉殊窟이 蒙兵에게 함락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嘉殊窟은 『高麗史』卷58 地理志3 黃州牧 土山縣條에 등장하는 만큼 黃州 관내 土山縣에 위치해 있었다. 황주는 고종 18년 9월에 이미 鐵島에 入保하였는데, 황주 관내 屬縣들은 가수굴에 피난했는지도 모르겠다.



급선을 차단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셋째, 해도입보책은 극히 소극적인 항전책이었지만 그 자체로서 장기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몽고군에게 수전을 감행케 하여 그들의 出血을 강요하였다. 살례탑은 고종 19년 9월경에 江都直攻을 계획하고 泰州 鄉戶(鄉吏) 邊呂를 붙잡아 水路를 문초하였으나 공격이 어려움을 깨닫고 결국 포기하였었다.<sup>67)</sup> 고종 23년 8월에는 唐古軍의 한 부대가 서해도의 요새였던 席島를 침공했으나 석도 防護別監에 의해서 격퇴되었고 몽병 3인이 포로로 잡혔다. 이후 해도침공은 也古軍과 차라대군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특히 차라대가 침입했던 시기에 두드러졌다. 몽군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고려의 해도입보전략 유지로 파악하고 고종 4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침공을 감행하였다. 차라대는 고종 42~44년 사이에 서해안 해도 장악을 장담하며 槽島戰鬪, 牙州海島戰鬪, 押海島戰鬪, 艾島戰鬪, 昌麟島戰鬪를 치렀지만 고려 측에게 모두 패배하였다. 차라대군은 북계의 神威島를 함락시켰을 뿐 나머지 海戰에서는 모두 패전하거나 물러섬으로써 몽고군은 일정한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넷째, 최씨정권이 해도입보책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高麗王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대몽강화 협상과 몽군의 철군조건에 이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강화천도 역시 해도입보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천도항쟁으로 인해 고려왕업 뿐만 아니라 최씨정권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다. 한편 대몽전쟁 말엽에 몽고군이 고려 내륙의 전투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이 강화협상을 서두를 때, 강도조정은 出陸還都 혹은 出水就陸을 공언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몽군의 철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대몽전쟁 전반부에 몽고는 강도조정이 蒙古六事 전체를 이행할 것과 출륙환도를 엄포하였지만 전쟁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전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게 되자 몽고 육사 전체를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는 高宗親朝와 출륙환도·출수취륙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요구조건을 고려조정이 수렴하는 태

도를 보이면 몽군 원수부는 곧바로 철군하거나 북계에 일부 병력을 잔류시켜 그 응답을 기다리곤 했다. 따라서 최씨정권이 입안하고 강행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려 한 해도입보책을 이후의 무인정권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대몽전쟁기 후반부 몽고군의 해도침공이라는 전술변화에 대한 崔沆政權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강도 지배층의 경제적 측면에서 自己出血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는 등 한계를<sup>68)</sup> 노출시키고 있었더라도, 그 당시 여·몽 간의 전쟁방식과 군사력을 감안할 때 강화천도를 위시한 최씨정권의 해도입보책은 몽고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이었다. 최씨정권이 30년 가까이 사료 상에 나타나는 23개의 전략해도에 의지하며 해도입보책을 고수했었고 崔嬪政權이 붕괴된 이후에도 金俊·林衍政權이 계속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後期 武人政權이 11년 동안 더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쉽게 납득이 간다. 해도입보책은 元宗 14년(1273) 4월 삼별초항쟁이 종식되는 순간까지도 世界帝國 몽고에 대한 三別抄軍의 유효한 대응전략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다. 요컨대 최우가 입안하고 실행하였던 해도입보책은 고려무인정권의 江都時代, 서·남해안 海洋時代를 선도하며 대몽항전시기를 풍미하였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1. 24, 심사완료일 : 2008. 3. 24)

주제어 : 對蒙戰爭, 崔氏政權, 海島入保策, 戰略海島, 大城入保體系, 別抄, 夜別抄, 州縣別抄軍, 江都時代, 三別抄

6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 秦川縣 人物 邊呂條.

68) 尹龍巖, 앞의 논문, 1982. 65~69쪽.

&lt;ABSTRACT&gt;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of *Choi's* Political Power(崔氏政權)  
and Strategy Islands(戰略海島) in the War against Mongol

Kang, Jae-gwang

*Choi's* political power(崔氏政權) superintended the war against Mongol during 29 years depending on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And it maintained the rule of King *Gojong*(高宗), further more continued military rule for the long time against Mongol invasion. Island protection tactics was devised for the first time after *Goryeo* Dynasty reviewed Big Castles Protection System(大城入保體系) toward many castles in *Heungwhado*(興海道) against Mongol invasion on July 6th year(1219) of King *Gojong*. This tactics was designed concretely and was accomplished vigorously in *Choi Wo*(崔瑀)'s rule. The final program of island protection tactics was escapement to the *Gangwha* Island, temporary capital. Specific tactics of *Choi* military ruler that moved soldiers, provisions, weapons, and war-funds to major strategy islands and aimed a blind point of Mongolia Forces, defeated Mongol invader each time with great effect.

*Choi's* political power relied on 23 strategy islands that mentioned in Korean history books, until the end of time. 23 strategy islands played important role for maintenance of *Choi's* rule. Especially, *Byeolcho*(別抄: Night Patrols(夜別抄), Divine Righteous Troops(神義軍)) of the central army and *JuhyeonByeolchogun*(州縣別抄軍) that stationed at islands on the Yellow Sea, ventured to go ashore at rear troops of Mongolia Forces by surprise. As the result, a number of rear troops wiped out by *Byeolcho* and *Juhyeonmin*(州縣民). They threatened the path of retreat of Mongolia

Forces, so in the end conducted its withdrawal. Except for destruction of *Sinwido*(神威島) that was a island out of 23 strategy islands, generally strategy islands on the Yellow Sea and the South Sea, repelled Mongolia Forces that performed naval battles. *Seokdo*(席島), *Jodo*(槽島), *Aedo*(艾島), *Aphaedo*(押海島), and *Changrindo*(昌麟島) Battles and *Aju*(牙州) Islands Battles were representative sea fights. Through triumph of these naval battles, strategy islands compelled Mongol invader to lots of bloods, and on the whole achieved brilliant war results.

Island protection tactics that could not help escaping to small islands from *Juhyeon*(州縣) as a basic migration unit, was the fruit of clumsy resistance against Mongol. Also this tactics exposed serious weakness that could not annihilate Mongol army, because *Choi's* political power had no ability to organize grand army on the sea. But if we consider the gap of military strength between Mongol and *Goryeo* at that time, island protection tactics must be the best alternative plan against Mongol invasion. After the collapse of *Choi's* political power, military ruler both *Kim Jun*(金俊) and *Im Yeon*(林衍) held fast to maintain island protection tactics. Through this tactics, *Kim Jun*(金俊) and *Im Yeon* extended the latter period(1259~1270) of military rule 11 years more, and they refused that the Court surrender to Mongol Emperor. Island protection tactics played a decisive duty as effective opposition measure of 3 Crack Units(三別抄) against the *Goryeo-Mongolia Combined Forces*(麗蒙聯合軍) until armed resistance of 3 Crack Units was ceased at April 14th year of King *Wonjong*(元宗). Therefore, We can say that this tactics led to *Gangwha* Capital Era(江都時代) and Maritime Period(海洋時代) for some time.

Key Words: War Against Mongol, *Choi's* Political Power, Island Protection Tactics, Strategy Islands, Big Castles Protection System, *Byeolcho*, Night Patrols, *JuhyeonByeolchogun*, *Gangwha* Capital Era, 3 Crack Units